

# 중국 대학 한국학 교육의 동향과 과제\*

-북경대학의 한국학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왕 단\*\*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중국 대학 한국학 교육의 역사와 현황
- III. 북경대학 한국학 교육의 역사와 현황
- IV. 북경대학 한국학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 V. 미래지향적인 한국학 교육을 위한 과제:  
결론에 대신하여

##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중한 양국의 관계에 대해 늘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一衣帶水)’라고 표현한다.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면 중국과 한국은 ‘문화와 문명’을

---

\* 본 연구는 2020년도 중국사회과학기금 중점 연구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과제 번호: 20AYY014, 과제명: 융합형 국제화 고급 외국어 인재 양성의 이론과 실천 연구[融合型國際化高端外語人才培養的理論與實踐研究])

\*\* 王丹, 중국 북경대학 한국언어문화학부 교수, [wangdan@pku.edu.cn](mailto:wangdan@pku.edu.cn)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1..183>

매개로, ‘한자와 유교 문화’를 매개로 매우 빈번한 교류를 해 왔다. 1992년 중한 수교 이래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인적 등의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중한 관계는 약 5년마다 단계별로 격상되어 1992년에 ‘우호 협력 관계’, 1998년에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2013년에는 ‘중한 인문교류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기구의 주도 하에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 문화 등 국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쉬운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반적으로 경색되었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회복되었고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가 실현되었다. 2019년 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992년의 63억 달러에서 2,434억 달러로 약 39배나 증가했고, 인적 교류 규모도 1992년 수교 당시의 13만 명에서 1,037만 명으로 약 80배나 증가했다.<sup>1)</sup>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중한 양국이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데 상호 협력하여 중한 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고 ‘동아시아 문명’이란 새로운 문명사적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교류는 ‘말과 글’ 즉 ‘언어’ 간의 소통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른바 ‘바깥말, 즉 외국어’란 이름으로 불린 언어에 대한 습득과 체화를 통하여 나라의 경계를 넘어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외국어 교육이 나라 간의 교류와 양국 국민 간의 소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1) [http://overseas.mofa.go.kr/cn-ko/wpge/m\\_1222/contents.do](http://overseas.mofa.go.kr/cn-ko/wpge/m_1222/contents.do).(2021. 12.

1)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기는 어렵지만 명나라 때 회동관(會同館) 통역관들이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를 교과서로 사용하고 청나라 때에는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을 두어 조선어 통역관을 양성했다는 역사 기록을 통해 볼 때 중국에서는 아주 이른 시기에 이미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만 하더라도 이미 70여 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무(無)’에서 ‘유(有)’로, ‘약(弱)’에서 ‘강(強)’으로의 발전을 통해 지금의 한국어는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를 제치고 영어와 일어에 이어 중국의 제3 교육 외국어로 부상했다. 전국의 200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 문학, 역사, 철학, 경제, 사회 등 한국학 전반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한국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한국학 인재를 양성해 왔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2010년 이후 과학 기술과 국제 교류의 발전, 그리고 중국 정부의 외국어 교육에 관한 일련의 정책과 규정의 반포에 따라 중국의 외국어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대학 교육 외국어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한국어 교육도 많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에 대한 수요를 부응하고 새로운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한국학 교육 동향을 분석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진행해 나갈 한국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국 대학 한국학 교육의 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대학이자 본 연구자가 공부했고,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북경대학 조선<sup>2)</sup>(한국)언어문화학부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한국학 인재 양성 현황을 밝히며 앞으로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를 언급할 것이다. 이러한 개체에 대한 분석이 중국 한국학 교육의 내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

2) 여기에서 ‘조선’은 북한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관례상 ‘조선’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 Ⅱ. 중국 대학 한국학 교육의 역사와 현황

중국의 근대사는 1840년 아편전쟁(鴉片戰爭)으로부터 시작하여 1949년 까지 약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기나긴 역사 기록 중에서 한국어 교육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權赫秀(2003)에 의하면 중국 근대 최초의 공립 한국어 교육 기관은 ‘흠차총리대신(欽差總理大臣)’을 맡은 원세개(袁世凱)가 1892년에 흠명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欽命駐扎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한성공서(漢城公署)에 설립한 ‘한어학당(韓語學堂)’이다. 1892년에 설립된 한어학당은 학생 10명을 선발하여 학당 책임자인 원세개의 관리 하에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학당의 규정과 엄격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 한국어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1894년 7월 23일에 일본 군대의 한국 왕궁 점령과 동시에 한성공서도 습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설립된 지 2년이 채 안된 한어학당은 문을 닫았고, 학당에서 공부하던 10명의 학생도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한국어 통번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던 청나라 정부의 계획은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부터 1945년 항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국어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공립 한국어 교육 기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1945년 중경(重慶)에 설립된 북경대학 한국언어문화학부의 전신인 국립동방어문전문학교(國立東方語文專門學校) 한국어과는 중국 대학 한국학 교육의 역사를 열어 주었다. 국립동방어문전문학교 한국어과는 1946년에 남경(南京)으로 이전하여 그해부터 처음으로 학생들을 모집했고, 1948년에 제1기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한국어(조선어) 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고려대학교 전 총장인 김준엽(金俊燁) 선생은 한국어과의 초대 교수를 맡았고, 한국인이었다가 후에 각각 중국 국적과 조선 국적을 취득한 이계열(李啓烈) 선생과 마초군(馬超群) 선생도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1949년 국립동방어문전문학교 한국어과는 북경대학 동방어문학학부(東方語文學系)에 편입되었고 명칭도 조선어학과로 바뀌었다. 그때부터 중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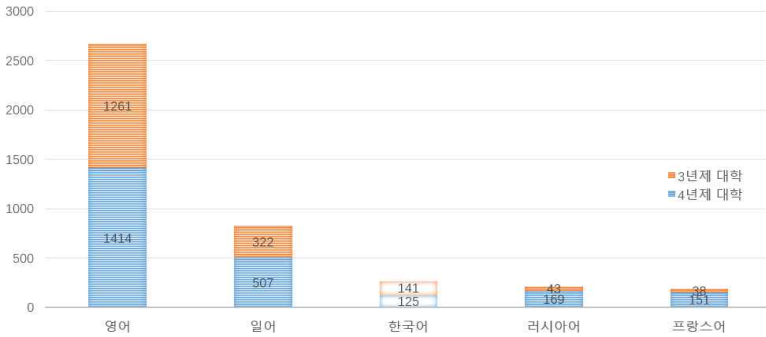
최고 명문 대학인 북경대학에서는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국가 건설에 필요한 한국학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북경대학에 이어서 대외경제무역대학과 낙양해방군외국어대학은 각각 1952년과 1953년에 조선어학과를 개설하였으며, 그 후 1972년 연변대학에서는 외국어로서의 조선어를 가르치는 조선어학과를 개설하였고 같은 해에 북경제2외국어대학에서도 조선어학과를 개설하였다. 교육 여건이 한없이 열악했던 시절에 중국 대학 조선어(한국어)학과의 교수들은 교수, 교재, 경비 등이 모두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한국학 교육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중국과 조선간의 교류에 필요한 외교관이나 전문가들을 양성해 주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부터 중한 수교 전까지 약 20년 동안 중국은 한국과 외교 관계가 없었고 조선과의 교류도 그리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어학과는 비인기 학과였다. 1972년에 설립된 북경제2외국어대학 조선어학과는 1973년부터 1992년까지 20년간 학생 모집이 중단되었고, 1993년까지 9명의 학생만을 졸업시켰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조선어학과는 1966년부터 198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3년간 학생 모집을 중단하였고 1985년까지 30여 년 동안 35명의 졸업생만을 배출하였다. 한 마디로 1972년부터 1992년 중한 수교 전까지의 중국 대학 한국학 교육은 침체 상태에 처해 있었다.

1992년의 중한 수교는 침체되어 있던 한국어(조선어) 교육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수교 후, 중한 양국 간 다방면 교류의 활성화 추세에 힘입어 중국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전에 없던 속도와 규모로 급속히 발전되었고 그때부터 2002년까지의 약 10년 동안 한국학 교육은 크게 변모했고 침체 상태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준비하는 과도기,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1993년 이후 한국어학과를 증설한 대학이 19개소나 되는데, 초창기에 개설된 북경대학 등 5개 대학과 합치면 무려 24개소나 된다. 이처럼 한국어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한국어학과도 점차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어학과 교수 수는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 30명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는 178명으로 늘어났고, 1995년 전에 500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는 2002년에는 2,357명으로 늘어났다. 그간 ‘표준한국어’(1~3)(1996, 25개 대학 공동 편찬, 북경대학출판사), ‘한국어’(1~4)(2000,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민족출판사) 등 통합 교재의 출판으로 한국어 교육의 수준도 점점 높아졌다. 물론 이렇게 빠른 성장 속도를 미리 예상치 못한 탓에 그에 따른 제반의 준비가 부족하여 교육과정, 교재, 교수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이 시기의 발전은 21세기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10년 동안의 빠른 성장을 거친 2002년부터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줄곧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내적 역량도 더욱 강화되었다. 2020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어학과 의 수가 266개에 달했고, 그중에 4년제 대학은 125개소이고 3년제 전문대학은 141개소이다. 학생 수와 교수 수는 각각 40,000명과 2,000명에 달했다. 학부 교육 위주의 특징을 지닌 중국 대학의 한국학 교육은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도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대학들 중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36개소이고,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 13개소나 된다. 70여 년의 노력을 통해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문화 등 한국학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학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비전공자까지 포함한 네 개 차원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아 힘차게 매진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전환기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교재 개발, 교사 양성, 교육 연구 등에서 과거 60여 년을 훨씬 능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국학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교수, 학습 방법의 발전에도 큰 성장을 가져왔다. 이는 이제부터는 양적인 팽창보다 내실이 있는 질적인 성장을 꾀하여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입증해 준다.



<그림 1> 중국 대학 외국어 학과 개설 현황

### Ⅲ. 북경대학 한국학 교육의 역사와 현황

#### 1. 북경대학 한국학 교육의 역사 연혁

북경대학의 한국학 교육은 중국 한국학 교육의 역사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국립동방어문전문학교 한국어과는 북경대학 한국어어문화학부의 전신이고 중국 한국학 교육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국립동방어문전문학교는 1949년 해방 이후 주은래(周恩來) 총리의 지시로 북경대학 동방어문학부에 편입되어 중국에서의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되었다. 당시 국립동방어문전문학교 한국어과의 교수로 재직했던 이계열, 마초군 선생은 북경대학 동방어문학부로 옮겨 와 재직을 하였으며 국립동방어문전문학교 한국어과에 재학 중이었던 위옥승(韋旭昇) 등 학생은 기차를 타고 북경에 올라와 북경대학 조선어학과<sup>3)</sup>에서 새로 모집한 신입생들과 한 학년

3) 당시의 학과 명칭은 ‘東方語文學系朝鮮語教研室’이고 ‘동방어문학부 조선어 교학, 연구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승격 전까지를 ‘조선어학과’로 칭하기로 한다.

을 편성해 한국학 교육을 받았다. 1951년에 국립동방어문전문학교 한국어과 제1기 졸업생이었던 양통방(楊通方) 선생은 김준엽 선생의 도움으로 한국 서울대학교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초대 조선어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분은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최초의 중국인 교수이다. 그리고 교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1년에 조선 김일성 주석의 직접 선발을 거쳐 뽑힌 조선의 언어 학자 류열(柳烈) 선생과 김광익(金光益) 선생이 북경대학 조선어학과에 파견되었고, 북경대학 조선어학과를 졸업한 위옥승, 하검성(賀劍城) 선생과 연변대학 졸업생인 박충록(朴忠祿), 이귀배(李貴培) 선생이 북경대학 조선어학과에 부임하여 한국학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 한족과 조선족, 그리고 조선 학자가 서로 협력하는 교수진이 형성되었으며 열악한 교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국학 교육의 초석을 단단하게 다졌고 국가 건설에 필요한 조선(한국)학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

중화 수교 전까지는 조선(한국)학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모집도 매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격년으로 모집하거나 3, 4년 간격으로 모집할 때가 많았고, 1956년부터 1963년까지, 그리고 1976년부터 1986년까지는 아예 학생 모집이 중단되었을 때도 있었다.<sup>4)</sup> 1990년대 이후 한국학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모집의 횟수도 많아졌고 1990년대에는 1991년, 1992년, 1995년, 1999년을 제외한 연도에 학생을 모집했고, 2000년부터는 매년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북경대학 조선어학과는 학부생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교육도 이른 시기부터 수행하기 시작했다. 1955년부터 석사과정 학생을 모집하여 한국학 대학원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1994년에 <조선어기초어법(朝鮮語基礎

---

4) 학부 학생을 모집한 연도는 1949년, 1951년, 1953년, 1954년, 1955년, 1964년, 1965년, 1971년, 1974년, 1975년, 1976년, 1986년, 1990년, 1993년, 1994년, 1996년, 1997년, 1998년이고, 2000년 이후부터는 매년 학생을 모집해 왔다.



语法)을 냈던 선덕오(宣德五)는 최초의 석사과정 학생이었고 나중에 주한 초대 중국대사를 역임했던 장정연(張庭延)과 그 부인인 담정(譚靜) 등도 이어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 후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대학원 교육이 중단되었다가 1978년부터 다시 석사과정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한국 철학과 한중 번역 방향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하기 시작했고, 2008년에 조선반도 역사 문화 방향, 2013년에 한국 어학과 한국어 교육 방향, 2019년에 한국 문학 방향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함으로써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완비한 한국어학 인재 양성 모델이 정립되었다.

학과 개설 이래 조선어학과는 지난 60여 년 동안 인재 양성과 한국어, 문학, 문화, 정치, 경제 등 한국어학 연구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성과는 교내에서 인정을 받았고, 중국 한국어학 교육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당시 학과장을 맡고 있던 본 연구자가 북경대학 외국어학원<sup>5)</sup>에 학과 독립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학과 독립 신청을 받은 외국어학원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학과 독립 신청을 수락해 주었고, 2009년 3월에 조선어학과는 북경대학 외국어학원 동방언어문학학부 조선어학과에서 '북경대학 외국어학원 조선(한국)언어문화학부'로 독립, 승격하게 되었다.<sup>6)</sup> 이번 학과의 승격은 북경대학 한국어학과의 발전 과정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학과가 그동안 교육, 연구 그리고 국제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거두어온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학교, 학과, 그리고 사회 각계의 역량을 동원하여 한국어학과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교 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로써 중국에서 역사가 오래된 북경대학 한국어학과는 증흥의 길목에 다시 서게 되었다. 북경대학 14개 비통용어 학과 중에 유일한 독립 학부로 부상하게 되었고 영어학과, 일어학과, 러시아어학과, 프랑스어

5) 여기서의 '학원'은 단과대학을 말한다.

6) 논의의 편의 상 이하는 '한국어학과'로 칭하기로 한다.

학과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 2. 북경대학 한국학 교육의 현황

북경대학 사학과, 사회학과 등 단과대학에서 간혹 한국 학자를 초청하거나 자체의 교수로 한국학 관련 교과목을 설치하고 한국학 관련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북경대학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주로 북경대학 외국어학원 소속인 한국어학과에서 실시해 왔다. 북경대학 외국어학원은<sup>7)</sup> 북경대학 인문, 사회 계열의 단과대학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서 북경대학 인문 계열 단과대학에 속한다. 외국어학원은 14개 학과와 MTI 교육 센터, 언어 교육 센터 등 모두 16개의 실체 교육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60여 종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교직원 수는 308명이고 학생 수는 1,284명인데 그중에 학부생, 석사과정 학생, 박사과정 학생이 각각 778명, 323명, 그리고 184명이다. 그 외에 33개의 허체 연구소에서 세계 각 나라의 언어, 문학, 역사, 그리고 현실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학과는 이들 16개 실체 교육 기관 중의 하나이고 학과 교수가 책임자와 주 성원으로 운영하는 허체 연구소인 ‘조선 반도 연구 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한국학 연구와 학술 교류를 추진하며 북경대학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북경대학 한국어학과 교수의진은 7명의 정식 교수와 3명의 한국인 강사,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7명의 정식 교수 중 정교수가 2명, 부교수가 4명, 강사가 1명이며, 최근 10년 동안 5명의 교수가 정년퇴임하여 현재 교수

---

7) 북경대학 외국어학원 소속인 실체 기관은 아랍어학과, 한국어학과, 독일어학과, 동남아학과, 러시아어학과, 프랑스어학과, 남아시아어학과, 일어학과, 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학과, 서아시아어학과, 아시아아프리카학과, 영어학과 등 12개 학과, 세계문학연구소, 외국 언어학과 응용언어학 연구소 등 2개 연구소, MTI 교육센터, 언어교육센터 등 두 개의 교육 센터가 있다.

진의 평균 연령은 45세 미만으로, 젊은 교수들이 비교적 많다. 한국어학과는 북경대학 외국어학원의 비통용어 전공에서 해마다 학생을 모집하는 유일한 학과이다. 학생 규모를 보면, 대략 학부생 약 60명, 석사과정 학생 20명, 박사과정 학생 10명, 모두 90명 정도이다. 학부생과 대학원 학생에게 각각 40여 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총 개설 과목 수는 약 90개에 달한다. 전공자를 위한 정규 과정 이외에 북경대학에서 다른 전공 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과목이나 온라인 강의도 개설하고 있고 사학과나 사회학과, 법학과에서 한국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회인을 위한 ‘한국 유학반’도 운영하고 있었는데<sup>8)</sup> 2020년 상반기부터는 코로나19 등의 원인으로 인해 학생 모집이 잠시 중단되었다.

#### IV. 북경대학 한국학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 1.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한국학 교육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2010년 이래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국제무대에서의 역할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3년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제안이 제창된 이후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경제, 문화, 인적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고 외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서는 중국의 대학 외국어 교육과 인재 양성 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는데, 그중에 한국학 교육과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의 발전과 직결되는 정책이나

---

8) 북경대학의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한국학 교육에 관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2019)에 수록된 줄고 ‘중국 비학위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참고할 수 있다.

규정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별과 지역 연구’ 대학원 연구 방향의 증설

2013년에 중국 교육부에서는 국무원학위위원회(國務院學位委員會) 제6차 학과 평의조(第六屆學科評議組)에 의해 작성된 『학위 수여와 인재 양성 1급 학과 소개: 외국 언어 문학 학과(學位授予和人才培養一級學科簡介: 外國語言文學學科)』<sup>9)</sup>를 반포했는데, 이는 외국 언어 문학 전공의 현황, 학과의 성격, 연구 범위, 양성 목표 등의 내용을 규명하고 학위 수여 대학의 전공 건설과 인재 양성 방안 제정, 학위 수여 관련 사업의 전개 등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개』에서는 외국 언어 문학 학과는 인문 과학에 속하고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문명과 문화 교류의 산물이라고 밝히고 외국 언어 문학 학과의 연구 범위를 외국 언어 연구, 외국 문학 연구, 번역 연구, 국별과 지역 연구 그리고 비교 문학과 문화 간 연구, 이 다섯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고 규명하고 있다. 또한 『소개』에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외국 언어 문학 학과에서 짊어져야 할 임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제 글로벌화, 문화 다원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 외국 언어 문학 학과의 지위와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외국 언어 문학 학과는 문화를 전승하고 전파하며, 세계 각국 국민 간의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고 인문 사회 과학을 발전시키고 외국어 교육과 외국어 인재 양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 『소개』에서는 외국어 전공자가 원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고 그리고 학과 내부의 내실 있는 건설과 학제 간 복합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개』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 언어 문학 학과의 연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특히 전통적인 연구 방향에 ‘국별과 지역 연구’를 새로 추가했다

---

9) 이하 『소개』로 약칭하기로 한다.

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별과 지역 연구는 사학, 철학,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등의 이론과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대상국이나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제도 그리고 외교 관계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며, 세계와 지역의 발전 관련 이론과 실천을 중요시하고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등 관련 학과와의 교차 연구를 지향한다. 이 전공 방향의 증설은 외국 언어 문학 학과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 주었고 국별과 지역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교육부에서는 2019년까지 국별과 지역 연구 기지 42개를 설치하고, 북경대학 조선반도연구센터를 포함한 국별과 지역 연구 센터 395개를 교육부 등록 국별과 지역 연구 센터로 지정하였다. 또한 현재 중국의 11개 대학에서는 외국 언어 문학 학과, 정치학과, 세계사 학과에서 ‘국별과 지역 연구’ 석, 박사 전공 방향을 증설하여 대학원생을 양성하고 있다. 북경대학 외국어학원에서는 대학들 중에 최초로 ‘국별과 지역 연구’ 전공 방향을 설치하여 원천적 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국가와 지역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 2) ‘雙一流’ 대학, 학과 건설 계획의 시행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에서는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체적 방안(統籌推進世界一流大學和一流學科建設總體方案, Construction Plan of World-class Universities and First-class Disciplines)』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까지 일부 대학과 학과가 세계 일류 대학에 진입하고, 2030년까지 더 많은 대학과 학과가 세계 일류의 대열에 진입하고, 대학 교육의 전체적 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되며, 21세기 중엽까지 일류 대학과 학과의 수, 그리고 실력이 세계 선두를 차지하고, 대학 교육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쌍일류’ 대학과 학과 건설 목표를 세웠다. 이 방안을 잘 수행하기 위해 2017년 9월에 교육부, 재정부, 국가발전위원회에서는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 대학 및 건설

학과 명단의 발표에 관한 통지(關於公佈世界一流大學和一流學科建設高校及建設學科名單的通知)』를 발표하여 ‘쌍일류’ 건설의 본격적인 개시를 선언했다. 2019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은 전국교육대회에서 교육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했는데 대학 교육의 목표를 규명하고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3) 『국가 표준』과 『교학 지침』의 반포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차원에서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 2018년 1월 교육부에서는 『일반 대학 학부 부문 교육 품질 국가 표준(普通高等學校本科專業類教學質量國家標準)』<sup>10)</sup>을 제정하고 반포하였다. 이 『국가 표준』은 일반 대학 학부 전공 목록에 수록된 92개 학문, 587개 전공, 그리고 전국 대학 5.6만 개 전공 학과에 적용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대학 교육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제정한 품질 표준이다. 전공 범위, 양성 목표, 교육 조건, 품질 보장 체계 등 8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이 『국가 표준』의 반포는 중국 특색을 반영한 세계 수준의 대학 교육의 품질 표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국가 표준』의 반포에 이어 2020년 5월, ‘외국어 교육 연구 출판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外研社라 칭함)’와 ‘상해 외국어 교육 출판사(上海外語教育出版社, 外教社라 칭함)’는 교육부 대학 교육 외국 언어 문학 전공 교육 지도위원회(教育部高等教育外國語言文學類專業教學指導委員會)에 의해 연구 개발된 『일반 대학 학부 부문 외국 언어 문학 전공 교육 지침(普通高等學校本科外國語言文學類專業教學指南)』을 출판하였는데 대학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일어, 그리고 비통용어 전공 교육을 위한 양성 목표, 인재에 대한 요구, 교과목 체계, 교수진, 교육 조건, 교육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

10) 이하는 『국가 표준』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전공에 대한 기준은 ‘비통용어 전공’ 부분에 규정되어 있다.

#### 4) ‘新文科’ 건설의 제안

‘신문과 건설’은 인문 과학이 새로운 기술 발전, 산업 혁명과 교차하고 융합함으로써 교차 학문, 교차 융합 학문 그리고 교차 전공의 인문 과학 건설에 관한 일련의 건설 사항과 건설 업무를 뜻한다. 2018년 10월, 교육부에서는 『수준 높은 학부 교육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인재 양성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의견(關於加快建設高水平本科教育全面提高人才培養能力的意見)』을 발표하여 ‘신공과(新工科), 신의과(新醫科), 신농과(新農科), 신문과(新文科)’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이 경제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문과 건설’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 제안은 사회 변화에 따른 고급 인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이 제안의 발표는 중국 대학 인재 양성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 5) ‘雙萬 計劃’의 실시

‘쌍만 계획(雙萬計劃)’은 ‘쌍일류’ 학과 건설 계획에도 포함되어있는데, 교육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2019년 4월 교육부에서 반포한 『일류 학부 전공 건설 ‘쌍만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통지(關於實施一流本科專業建設‘雙萬計劃’的通知)』를 반포함으로써 일류 학부 전공 건설을 위한 ‘쌍만 계획’을 개시했다. 쌍만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만 개의 ‘국가급 일류 학부생 전공 건설 거점’과 약 만 개의 ‘성급 일류 학부생 전공 건설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류 학부 전공은 전공의 포지셔닝이 명확하고, 관리가 규범적이어야 하며 교육 개혁 성과가 현저하고 교수진의 실력이 강하며 인재 양성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북경대학 한국어학과는 이상의 요구에 부합하여 2020년에 ‘국가급 일류 학부생 전공 건설 거점’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상은 최근 약 10년 동안 대학 교육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중국 교육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소개이다. 이들 정책의 실시는 중국의 대학 인재 양성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외국 언어 문학 학과는 중국 대학 전공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외면할 수가 없다. 대학 외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나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국제화 시대의 발전에 부응하는 복합형, 융합형 인재 양성과 지식 체계의 혁신을 외국어 학과 건설의 두 가지 핵심적인 임무로 삼아야 하고 뉴노멀과 새로운 발전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대학 외국어 교육을 행해야 한다.

## 2. 북경대학 한국학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북경대학은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이고 ‘인문위본(人文爲本), 다원발전(多元發展)’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형, 연구형 대학이다. 북경대학 한국어학과는 북경대학의 풍부하고도 수준 높은 교육 자원을 이용하고 학교 교육, 국제 체험, 협동 양성 등의 방식을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국제적 시야와 사회적 책임감을 겸비한 고급 한국학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한국어학과에서 양성하는 한국학 인재는 한국어 언어, 문학, 문화 등의 전공 지식을 잘 장악하고 우수한 한국어 구사 능력,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자주적 학습 능력, 실천적 능력, 그리고 연구 능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국제 업무에 참여하여 외교, 대외 무역, 국제 문화 교류 등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고 한국어 교육과 연구, 언론 출판 등의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국제화와 다원화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합형 고급 한국어학 인재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하고 고급 한국어학 인재에 대한 사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북경대학 한국어학과는 교수진은 교육 이념의 혁신, 교육 대상의 확대, 교육과정의 개편 등 일련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북경대학에서 한국어학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한 특색이 있는 한국어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교육 환경의 변화는 모든 교수진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었고 변화에 순응하는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북경대학 한국어학과에서는 세계적인 일류 학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선 교육 인식의 전환을 실현하였다. 북경대학 한국어학과는 학교 전체 학생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양적인 팽창보다 교육 품질의 향상을 주 목표로 삼아 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내실이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북경대학의 풍부한 교육 자원과 학과 간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학교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술 분위기는 학과 간의 교차와 융합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중국 최고의 교수진과 최고 수준의 학생은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절호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재 양성 실천을 수행해 왔고 고급 한국어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언어 지향적인 전통적 인재 양성 모델에서 지역 지향적인 인재 양성 모델로 전환시켰고 교육 목표의 전환, 교육 대상의 확대, 교육 주체의 다양화, 학습자 연구 능력의 제고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유익한 시도를 해 보았다.

### 1) 실용 교육에서 전인 교육으로의 전환

외국어 학과의 교육 목표는 외국어 지식과 외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번역하기 등 언어 기능을 장악하는 기능형, 도구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왔다. 하지만 중국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과학 기술의 발전, '일대일로' 제안의 실시 등으로 인해 외국어 인재에 대한 요구는 외국어에만 능통한 '외국어통(外語通)'이 아니라 외국어와 전공 지식, 인문 지식에 모두 능통하고 지적체를 고르게 갖추고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갖추며 지식, 소양,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이어야 하고 '국제적 시야를 가지고 국제 규칙에 통달하며 국제 업무와 국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화 인재'이어야 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가 표준』 『교육 지침』에서도 외국어 전공 학생들이 겸비해야 할 소양, 지식, 능력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양 요구: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과 가치관, 양호한 도덕적 품성, 중국 정서와 국제적 시야, 사회적 책임감, 인문과 과학 소양, 협력 정신, 혁신 정신, 학과 기본 소양을 갖추고 덕지체미로(德智體美勞) 를 두루 갖춘 양질의 인재이어야 한다.

지식 요구: 대상국 언어 지식, 문학 지식, 국정 지식을 장악하고 중국 언어 문화 지식을 익히며 관련 전공 지식과 인문 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의 기초 지식을 이해하여 학제 간의 지식 구조를 형성하고 해당 전공의 특색을 구현해야 한다.

능력 요구: 전문 외국어 구사 능력, 문학 감상 능력, 다문화 능력, 국제 업무 참여 능력, 정보 기술 응용 능력, 자주 학습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실천 능력과 혁신 능력을 갖추고 영어 등 기타 언어 응용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sup>11)</sup>

---

11) 素質要求：具有正確世界觀、人生觀和價值觀，良好的道德品質、中國情懷和國際視野、社會責任感、人文與科學素養、合作精神、創新精神、學科基本素養，成爲德智體美勞全面發展的高素質人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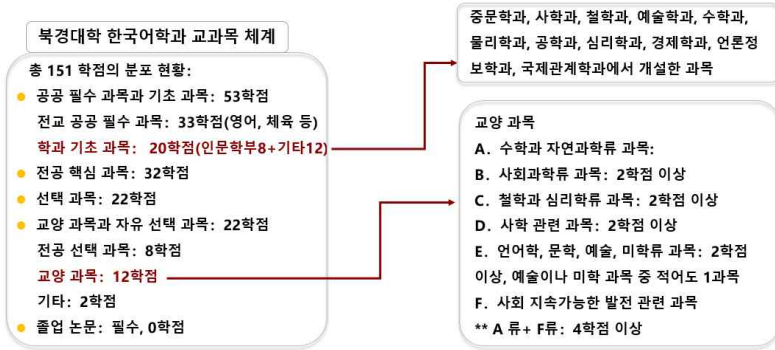
知識要求：應掌握對象國語言知識、文學知識、國情知識，熟悉中國語言文化知識，瞭解相關專業知識以及人文社會科學與自然科學基礎知識，形成跨學科知識結構，體現本專業特色。

能力要求：具備專業外語運用能力、文學賞析能力、跨文化能力、國際事務參與能力、信息技術應用能力、自主學習能力、思辨能力、實踐能力和創新能力，積極拓展英語等

북경대학 한국어학과는 한국어 지식과 기능만을 전수해 주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이 지덕체를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행하는 곳이다. 교육부의 요구와 북경대학 학생들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북경대학 한국어학 전공 학생들이 견비해야 할 소양은 인성 소양, 건전한 심신, 전공 소양, 문화 소양 등이고, 갖추어야 할 능력은 지식을 획득하고 응용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표현 능력, 그리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등이다. 북경대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지식 구조는 한국어 기초 지식, 한국어학 전공 지식, 그리고 인문 자연 지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어 기초 지식은 발음, 어휘, 문법 등 한국어 지식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 등 한국어 기능을 말하고, 한국어 전공 지식은 한국의 어학, 문학, 역사,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을 포함한 한국의 사회 문화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인문 자연 지식은 한국 관련 지식 이외에도 학생들이 알아야 할 문학, 역사, 철학, 예술, 그리고 일부 자연 과학 관련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국어학 인재의 지식 구조에는 이상의 지식과 영어, 한국어 이외의 다른 전공 지식, 그리고 국제 체험 관련 지식, 인공지능 관련 지식 등도 포함된다. 학생들의 합리적인 지식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교과목 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다음과 같은 공공 필수 과목과 기초 과목, 전공 핵심 과목, 선택 과목, 교양 과목과 자유 선택 과목 등의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했고, 북경대학 다른 학과의 협조에 힘입어 학생들의 한국어 지식과 기능, 한국어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 과학, 자연 과학 관련 지식도 전수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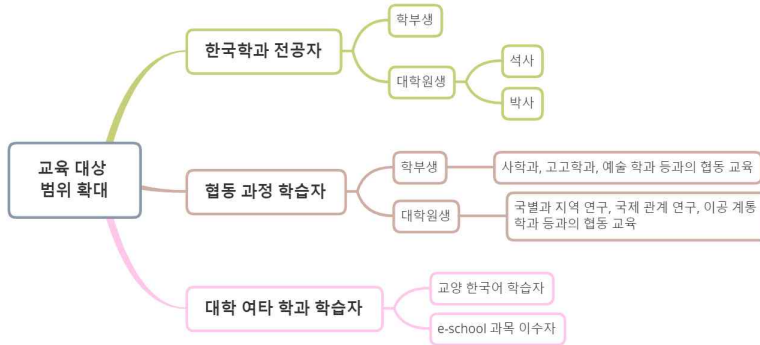
其他語種運用能力。



<그림 2> 북경대학 한국어학과 학부생 교과목 체계

## 2) 단일 교육 대상에서 다중 교육 대상으로의 전환

북경대학 한국어학과는 한국학 전공 학부생, 대학원생을 주요 교육 대상으로 하지만 2009년 북경대학에서 '교양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이후로 교육 대상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북경대학 한국어학과는 한국학 전공자, 협동 과정 학습자, 대학 여타 학과 학습자 등을 상대로 한국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 북경대학 한국학 교육 대상

위 <그림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학과와 같이 한국어학과와 함께 주요 교육 대상은 학부생과 한국 어학 방향, 한국 문학 방향, 한국 문화 방향, 그리고 한국어 교육 방향 석사과정 학생, 또한 한국 역사와 문화 방향, 한중 번역 방향,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 방향, 그리고 한국 문학 방향 박사과정 학생이다. 이외에 한국어학과 학생은 아니지만 한국어나 한국,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다. 한국어학과는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국과 한국학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협동 과정을 개설하거나 교양 과목을 개설하고 e-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 (1) 외국어+외국 역사/ 외국어+외국 고고학 과정

북경대학 외국어학원에서는 2011년부터 ‘외국 언어와 외국 역사’ 과정을 개설하였는데 ‘외외 전공(外外專業)’이라고 칭한다. 한국어학과에서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사학 전공 학생을 받아 해당 학생에게 한국어 지식과 한국어 기능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고 있는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과정은 현재 고고학과 학생에게도 확대 시행하고 있고 향후 ‘외국어+외국 국제 법학’, ‘외국어+외국 사회’, 그리고 ‘외국어+외국 경제’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 (2) 교양 한국어 강의

한국어학과에서는 2007년부터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한국어’(1, 2)를 개설하였는데 늘 50명의 수강 신청 정원을 순식간에 모두 채울 정도로 인기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이 실시된 이후 2015년부터 외국어학원에서는 ‘일대일로 외국 언어와 문화 시리즈-교양 한국어 시리즈 강의’를 개설하였고 한국어학과에서 원래 개설했던 ‘교양 한국어’를 이 강의 시리즈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2과목으로부터 6과목으로 확대시켰고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여 전교 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이 강의는 북경 소재 다른 대학에도 개방되어 있어 이들 대학의 학생들도 수강 가능하다.

(3) e-school

한국어학과에서는 2012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e-school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온라인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교수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덕분에 북경대학 한국어학과 전공자뿐 아니라 전교 학생 모두가 수강을 할 수 있다. 약 10년 동안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한국 대중 매체와 유행 문화’,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영과 관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강의는 북경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한층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상의 시도 이외에도 전공이 우수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북경대학 외국어학원에서는 2019년 9월부터 ‘북경대학 다중 언어 구사 글로벌 영재반(北京大學多語種國際化卓越外語人才培養實驗班)’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영재반은 영어 수준이 높고 전공 성적이 좋으며 학습을 하는 데 여유가 있는 우수한 학생에 한해서 운영된다. 영재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2-3년 동안 전공 이외에 32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과목별로 보면 제2 외국어가 16학점, 영어 강화 수업이 4학점, 역사, 문화, 외교 수업이 6학점, 교내외 실천 학습이 2학점, 국제 체험이 2학점, 제3 외국어가 2학점이다. 이 영재반은 지금까지 영어, 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통용어에 한해 개설해 왔는데, 2022년부터는 한국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북경대학 한국어학과는 위와 같은 특색이 있는 교육 형식을 통하여 한국학

교육 대상을 북경대학 내지 북경시로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국 청년들이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3) 한국어 구사자 양성에서 한국학 전문가 양성으로의 전환

북경대학은 연구형 대학만큼 농후한 학술 분위기가 있고, 학생들의 학문 기초 다짐과 학생들의 연구 능력 제고를 중요시하는 전통과 특색이 있다. 한국어학과도 북경대학의 이러한 전통을 잘 계승하여 연구 지원, 학술 회의의 참가 지원, 학술 행사 개최, 학술 특강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학원생의 연구력 제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생들이 ‘총장 연구 기금(校長基金)’, ‘도전배 5·4청년 학술 논문 경시 대회(挑戰杯五四青年科學獎競賽)’ 등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과 교수들은 이들의 논문 지도 교수를 맡아 주제 선정부터 논문을 완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지도를 해 주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3개 팀의 56명 학생이 각종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그중 논문 6편은 북경대학 학부생 학술 연구를 장려하는 최고의 포상인 ‘도전배 5·4청년 학술 논문 경시 대회’에서 1, 2, 3등 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외국어학원의 21개 학부 전공의 지원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이다. 이로써 학생들의 연구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학생들의 연구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했다. 한국어학과의 학부생들 중에 80% 이상이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캠브리지대, 서울대 등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

연도	신청자	논문 제목	지도 교수
2013	王芮, 高憶晨, 郭月華	한국어 경어법을 통해 나타난 한국 사회의 관계	왕단
	敖琳琳, 谷笑媛, 李曉暢	한중 대학생의 결혼과 연애 관념 비교 연구	금지아
2014	劉暢, 喻文姍, 楊嘉浩	중한 양국의 ‘개’ 관련 속담 비교 연구	왕단

		*제23차 북경대학 도전배 5·4청년 학술 논문 경시 대회 2등상 수상	
2015	王怡丹, 許詣玲, 吳瑤	한국 대학생의 시각에서 본 중국 이미지 연구	금지야
2016	后博文, 王斯立, 叶陈宁	한중 2인칭 대명사 대조 연구 *제24차 북경대학 도전배 5·4청년 학술 논문 경시 대회 2등상 수상	왕단
	張家誠, 王浚栩	한국 경제의 전환: 중국 공급 측면의 개혁에 대한 시사점	이팅팅
	朱珠娜爾, 彭玮, 許文菲	한국 대학생 중국 관광 현황을 통해 본 중국 관광 문화의 홍보와 전파	금지야
2017	羅孟晋, 郭銳, 曹若晨	한민족의 태몽 풍속 연구	임성희
	鄧晨予, 張桐川, 陳雅園	한국어와 중국 민방언(閩方言)의 기원 관계 연구	왕단
	金珠瑪, 李思琦	중국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 대량 수입 문제 연구- '런닝맨'을 예로 하여	금지야
	王子璇, 陳瑾怡, 孫啓	한국 위생 서비스 무역 연구	이팅팅
2018	馮筱航, 黃毓清, 陳暉黃	VAR와 ARMA 모형을 이용한 한국 산업 구조가 청년 실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금지야
	劉博維, 劉佳豪, 游仕杰	한국어 민속 문화 용어 번역 연구	왕단
	殷達, 唐書博, 張之垚	21세기 한국 고시원 문화 발전 상황 연구	임성희
	蘭星辰, 石礫, 尼森	중조 국경 지역 비전통 안전 문제 연구	이팅팅
2019	尼森	2008-2017년 한국 문화 산업 발전 평가와 중국 문화 산업에 대한 시사점 *제24차 북경대학 도전배 5·4청년 학술 논문 경시 대회 1등상 수상	임성희
	趙楠, 謝雨	정부 주도 하의 양로 산업 시장화 발전 경로 연구 *제27차 북경대학 도전배 5·4청년 학술 논문 경시 대회 특별 기여 3등상 수상	육걸화
	宋奕璇	세계 일류 대학 학부생 교육과정의 국제적 비교 연구 *제27차 북경대학 도전배 5·4청년 학술 논문 경시 대회 특별 기여 3등상 수상	심문흠
	謝雨	16세기 조선조 사인 계층의 상장례와 이장 풍습 연구 - '복제일기'를 중심으로	임성희



2020	張宇溟	개념 은유 이론의 시각에서 본 한국어 구의 인지적 근거와 학습 전략 연구 *제29차 북경대학 도전배 5·4청년 학술 논문 경시 대회 1등상 수상	왕단
	張可佳	한국어 직업 관련 완곡어 연구	왕단
	仇康化, 徐麗博, 周子萱	영어 외 외국어 전공 학부생 학습 권태 현상과 원인 분석	왕단
	王子文, 徐雨雪, 趙心浩	중한 5G 상업용 발전 현황과 응용 전망 연구	금지야

<표 1> 북경대학 한국어학과 학부생의 연구 성과

#### 4) 단일 교육 방식에서 다차원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

북경대학 한국어학과와 한국학 교육은 교실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으로서 각종 행사를 열고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한한국어학과에서는 2007년부터 ‘감지 한국’ 석학 강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52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초대 주한 중국 대사 장정연, 이화여대 총장 이배용, 이대학술원 객원 교수 한영우, 고려대 총장 이기수, 국립국어원장 권재일, 민현식, 미국 시카고대학 사학과 교수 Bruce Cumings, 주중 한국 대사 노영민 등이 북경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멋진 특강을 해 주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매년 연 2회씩 ‘북경대학-북경외국어대학-중앙민족대학 학부생 한국어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는 낭독, 더빙, 웅변, 변론 등 일련의 경연을 펼침으로써 학부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부여해 주고, 학교 간의 친선 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어학과에서는 국내외 한국학 대학원생 학술 논단과 말하기 대회, 글짓기 대회, 통역 대회, 문학 작품 독후감 대회 등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이 결과 학생들은 뛰어난 한국어 구사 능력과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 주었고, 최근 4년 동안 100개 이상의 수상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 V. 미래지향적인 한국학 교육을 위한 과제: 결론에 대신하여

북경대학 한국어학과에서는 새로운 교육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북경대학 한국어학과에서 진행해 온 한국학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중국 대학의 한국학 교육의 효시인 북경대학 한국어학과에서의 한국학 교육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70여 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으로 북경대학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이미 성취해 놓은 것도 많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 교수 충원 문제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은 교육의 주체인 교수에 의해 진행된다. 그동안 연로하신 교수들이 연이어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에 학과 교수의 결원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학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과에서는 '외외 전공' 프로그램의 실시와 학술 행사의 주최 등의 방법을 통해 문, 사, 철 등 주류 학문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목시키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학문 융합의 방법과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사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경대학 한국어학과는 고급 한국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시도를 많이 했고 성취한 것도 많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얻은 경험을 타 대학과 잘 공유하면 중국 대학 한국학 교육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글은 중국 대학 한국학 교육의 역사를 열어 준 북경대학 한국어학과와 한국학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 주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그 동안 학과 교수들은 북경대학 한국학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면의 제한과 본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북경대학 한국어학과에서 행해 온 한국학 교육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학과 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북경대학의 한국학 교육은 중국 대학 한국학 교육의 일부이다. 미래지향적인 한국학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현 단계 중국 대학 한국학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교육 관계자와 교수진은 교육 관념, 교육 목표, 인재 양성 모델, 교육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 시대의 변화, 그리고 국가의 수요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자신의 인식부터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아 발전을 꾸준히 행하고 참된 한국학 교육의 실천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왕단, 「중국 비학위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개원 50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서울대학교, 2019.
- 蔡美花·宋雪梅, 「朝鮮韓國學的學科發展與中國意義」, 東疆學刊 38-3, 2021.
- 教育部高等學校外國語言文學類專業教學指導委員會, 『普通高等學校本科外國語言文學類專業教學指南』,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20.
- 權赫秀, 「近代中國第一所公立韓國語教育機構--袁世凱駐韓公署附設韓語學堂考」, 當代韓國 2003年 春夏合刊, 2003.
- 王丹, 「高校非通用語專業學生綜合素質能力培養策略研究」, 外語教育 8-1, 大連外國語大學, 2020.

---

**Abstract**

TRENDS AND CHALLENGES OF KOREAN STUDIES PROGRAMS  
IN CHINESE UNIVERSITIES - WITH ILLUSTRATION OF THE  
CASE OF PEKING UNIVERSITY-

DAN WA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began in 1945 and has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over the past 70 years. As of 2021, as many of 266 Chinese universities are offering degree programs of Korean undergraduate major, making Korean an important field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Currently, the strategic objec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shifting from “extensive development driven by scale expansion” to “intensive development of quality improvement”. This paper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the historical trajectory and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as well as the recent policies about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over the past ten years. It then focuses on the case of Peking University to illustrate the effective measures taken by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t PKU to improve the curriculum and educational practices of Korean Studies, before pointing out the direction of further improvement and remaining challenges in order to better foster the future leaders of Korean Studies.

한국문화연구 41

Key Words : Chinese Universit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t PKU